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28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소속 기관 및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고창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28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소속 기관 및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참여 인원을 최소화

한 가운데 경과보고, 주요귀빈 격려 및 축사, 축하공연 및 테이프컷팅식, 시설리문당으로 간락하게 진행했다.

이황근 교육장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고창교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고창교들이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더욱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 초·중등 교원 역사 전문성 기른다

도교육청, 오늘 '조선시대 전염병·위기 극복 리더십'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조·중등 교원의 역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사 특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역사특강은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요구에 따라 역사 이해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다양한 역사 이해 특강을 통해 수업 역량을 키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1차 역사특강은 29일 오후 4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사학과)가 '조선시대 전염병과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 전염병과 이에 대처했던 왕과 참모들의 리더십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던 조선 역사 속 왕들의 삶을 소개하고, 전염병 등과 같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강을 통해 역사 빛나고 지혜를 얻어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해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수학습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위기학생 올바른 성장 선제적 대응

전북교육청, 학교장 역량 강화 워크숍… 도박예방·심리정서지원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위기학생 지원 및 도박 예방을 위한 '2020 초·중등 특수학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워크숍은 학생 도박중독 실태를 확인하고, 도박중독 이해를 통한 예방 교육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또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장과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은 지난 27일 김제·부安지역 학교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3일 군산 △8월 7일 정읍·고창 △8월 10~11일 전

주·남원·완주 △8월 12일 익산 △8월 14일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순이다.

강사진으로는 오남경 박사, 양찬모 교수, 김성주 팀장, 박상규 교수, 권석준 의사, 임은성 의사, 이영순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학생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실태와 다양한 요인에서 오는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학교장의 체계적인 대처 능력향상 등에 관한 교육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안내한다.

/장은성기자

## '좋은 학교'는 '마을'이다

전주덕일중, 고병현 교수 초청 마을교육공동체 특강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라고 말한다. 또한 학교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지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배우며 주민 모두의 미래 개척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학교'란 바로 마을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와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교육을 강조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전주덕일중학교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덕일초, 히가초, 팔복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등 60여명을 초청해 진행될 계획이다.

고병현 교수는 '좋은 학교'란 아이들이 풍요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이며, 교사와 지역주민이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마을'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동안 전주덕일중은 지역의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혁신학교, 혁신대학기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울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 전주덕일중학교는 지난 2월에는 마을 활동기를 초청해 주변 마을에

관한 연수를 진행했고, 6월에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도서를 읽고 전교직원이 독서토론을 했다. 9~10월에는 교과별로 마을에 관한 수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덕일중학교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 시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해 학교 유타리를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토대를 학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18일에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저자이며, 친이니는 클래스 세미나 등에서 독일교육의 사례를 들어 우리 교육 문제와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정읍학생복지회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생 모집

정읍학생복지회관(관장 한재규)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샘골 여름도서관학교', '샘골 여름도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샘골 여름도서관학교'는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동안 ▲Talk Talk 영어동화(초등 1~3), ▲와자찌컬 책놀이터(초등 1~3), ▲아나운서 스피치교실 1기·2기(초등 1~6), ▲상상플러스 3D펜교실 1기·2기(초등 1~6), ▲뚝딱뚝딱 목공교실 1기·2기(초등 4~6) 등 8개 과정을 운영한

/장은성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